

교 회

463. 교회는 봉헌된 이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열어 보입니다. 만민의 어머니인 교회는 그 마음 속에 간직한 수많은 비밀들,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합니다.

봉헌된 이들 안에서 이 고통의 메아리가 울리지 않게 된다면 교회는 더욱 큰 아픔으로 신음 할 것입니다. 격동하는 교회 앞에 눈을 뜨시다. 이 깊은 현실 앞에 깨어 있습니다.

464. 수도원에는 오직 교회의 정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수도원의 이상에 충실한 것은 곧 교회의 지극히 충실한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의 진실성, 하나되는 일치, 심오한 기쁨은 곧바로 하느님의 교회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465. 그대의 입술은 사랑을 노래하고, 그대의 삶은 살아 계신 하느님을 외쳐야 합니다. 그대의 존재와 이름에는 교회의 외침이 생생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466. 그대 영혼 안에서 교회를 보살피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신비를 살아가십시오! 교회의 메아리가 되십시오. 그 신비와 사랑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온갖 열성과 책임을 다하여, 그대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대보다 앞서 먼저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아니, 차라리 그대 자신이 교

회가 되십시오. 더할 수 없는 어머니요, 신부요, 친구이며 참으로 모든
이의 것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이자 메아리가 되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도록 그대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죽기
까지 교회에 충실 하십시오

467. 어머니이신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호소합니다. 완전
한 내어줌과 철저한 포기를 요구합니다. 용감한 사람들의 충실을, 큰 일
이나 작은 일에서나 지극히 충실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
께서 요구하시는 것에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468. 변천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요새를 떠나지 않는
살아있는 증거자들, 용감한 영혼들을 교회는 필요로 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오늘날 이런 이들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469. 나의 작은 친구여, 나는 그대가 교회로 가득 차 있고 그대의 삶이
좋으신 어머니의 메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대와 나, 우리 함께 열렬히 교회를 사랑하며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
는 교회를 세상에 내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교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신성한 격정을 그대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감한
연인의 사랑으로 그대 마음 안에 힘껏 교회를 끌어안고 또 느껴 보십시
오. 교회를 위해 그대의 생명을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470. 교도권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자신

을 잃어버리는 사랑을 청합니다.

하느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사랑해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한다는 느낌조차 바라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용감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드럽고도 열린 마음으로, 영혼의 타오르는 기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471.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의 위대한 야망입니다

하느님의 얼굴은 당신 교회의 신비로운 얼굴 속에 감추어 계십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 주는 것이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봉헌된 이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신부의 얼굴이 흐려지고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애덕, 부드러움, 이해심, 열린 마음들이 세상에 교회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얼굴을 형제들에게 충실히 보여 주십시오.

472. 우리 생애와 존재 전부를 통틀어 교회를 위해 바치고, 한평생을 형제들을 위해 살아 간다면 우리 인생의 최후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모든 세기와 문명과 사람들의 혈관 속에 하느님의 생명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굶주리고 목마름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을 하나로 엮어 봉헌하십시오.

473. 지금 교회가 처한 시간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관상어로 초대 받은 영혼들에게 커다란 책임이 요구되는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474. 교회의 무게가 우리 어깨를 내려 누르고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 성녀 카타리나,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미니코의 어깨를 내려 누르던 무게, 성 바오로가 지고간 것과 똑같은 거룩한 무게가 우리 위에 지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신비로운 무게를 지고 갈 때입니다. 이 한 목숨 다 바쳐 교회를 살리고, 사람들이 하느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도록 종일토록 죽어가며 구원해야 합니다.

475. 그대의 맥박과 숨소리만 들어도 그대 마음이 바로 하느님의 화산이요, 교회의 소식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사랑의 편지임을 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것이 제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대가 서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 마음을 사르는 그 불꽃을 뿜어내십시오. 뼈 속 깊이 타오르는 저항할 수 없는 그 불꽃, 그대를 죽어 가게 하는 그 불꽃을 토해내십시오

교회를 향한 사랑의 힘 아래 쓰러져 죽어간 시에나의 불꽃, 카타리나처럼 그대도 그 사랑의 불길 아래 죽으십시오.

476. 그대는 자기에 대해서는 온전히 잊고 그 자리를 교회의 신비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대 전 존재가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교회로 채우십시오.

자녀들인 우리가 어머니의 소식을 전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빨리 우리 어머니 교회에 대해 알게 되겠습니까!

자모이신 교회와 같이 그대도 행동하고, 교회와 함께 느끼고, 그대의 모습으로 교회를 반영하여, 그대에게 다가오는 이들로 하여금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도록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이

신 교회의 증인이 되는 것, 이 것이 그대의 행복이 아닌지요?

477. 어머니이신 교회가 생각하는 바를 우리 것으로 합시다. 그 빛을 받으러 가까이 나아갑시다. 거기서 형제들과의 깊은 친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적인 차원을 지니고 범세계적인 시각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478. 침묵의 교회여! 그대 사랑이 나의 사랑이요, 그대 고통이 나의 고통이로다.

479. 풍요로운 수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들을 그대 영혼 안에 간직할 것을 권고합니다.

교회와 함께 느끼고 마음을 다해 교회에 밀착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신과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망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480. 베드로의 작은 배는 사랑과 관상을 요구합니다. 험난한 바다에서 싸우는 거대한 인류 가족을 위해 관상자들이 삶을 투신해줄 것을 기다립니다.

481. 33억의 인구, 참으로 엄청난 숫자의 인구입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요! 단지 철의 장막 뒤에서 가해지는 혹독한 박해 속에 살아가는 10억 인구의 아픔만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 지고 침묵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지요!

침묵의 전문가, 하느님과 대화의 전문가, 사랑의 전문가들인 우리 관찰자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느님의 요구가 시급하게 다가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식어버린다면 교회는 더 이상 싸움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는 이 신비로운 사명이여!

482. 자모신 성교회는 시간을 초월 하는, 가슴 깊이 스며드는 언어를 당신 자녀들을 위해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쉬워지고 단순하게 될 것입니다.

483.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정신을 우리 생활의 세밀한 부분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강화되고 깊어지며 새로운 차원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빛과 은총, 그리고 그 결실들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공의회 문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소화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84. 성녀 카타리나의 화산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울부짖으며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 살아있는 화산에 그대도 타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로 변신한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이신 교회를 위해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타버리십시오.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미쳐버린 영혼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대 발

걸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를 심고 그대 가는 곳마다 화산처럼 타오르는
그대 사랑의 발자취를 남겨 놓으십시오.

485. 모든 이를 위해 모든 것이 되십시오. 그대 영혼 안에 교회의 어려
움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국제적인 활주로를 간직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세상 모든 형제들을 위해 입술에는 미소를 머금고, 마음에는 불꽃
을 간직한 채 죽을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486. 주님, 저는 당신 교회 안에서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해 보이지 않
는 생명, 기쁨, 평화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487. 교황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회가 발언하였고 공의회가 언급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한가지 남은 일은 교회가 제시하는 풍
요로운 빛으로 우리 정신을 밝히는 일입니다.

488.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은 진실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함이란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것입니다.
말이 많고 행동이 적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489. 그대의 온 존재가 교회의 살아있는 절규가 되십시오. 매일 매일 그
것을 봉헌하고 무엇보다 특별히 성체성사의 희생 안에서 봉헌하십시오.
성찬례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어머니이신 교회의 힘으로 살아가십시
오

490. 침묵! 기도하는 침묵,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하느님과의 접촉 안에 감도는 깊고도 짙은 침묵! 영혼은 그 안에서 하느님 영광의 위대한 소식을 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고스란히 내어놓습니다.

나의 어머니이신 교회여!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게 청하십시오.

491. 그대 마음을 화산으로 만들고 그대 입술을 통해 “하느님” 하고 외치는 불꽃을 뿜어내십시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하느님께서 교회의 신비를 통해 인간과 혼약을 맺으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대가 창조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이신 성교회는 하느님과 우리들의 혼약이 이루어지는 임금님의 신방입니다.

그대가 사랑에 빠진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대를 통해 교회의 숨결을 감지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92. 공의회는 교회의 새로운 이미지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충만해가도록 성교회의 각 지체들이 그 모습을 가꾸고 유지해가야 합니다. 교회는 숨어계신 하느님의 모상이기에 각별한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493. 그대 마음을 살펴 보십시오.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세상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그대 마음 안에서 하십시오.

세상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 마음에 평화를 심으십시오. 사람들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대 마음에 일치를 심으십시오. 형제들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까? 그대 안에 공동체적인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494. 그대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세상을 바라 볼 때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고통 받고, 찢겨지고, 버려지고, 부서진 세상, 빵과 사랑에 굶주린 세상을, 모든 형제들을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495. 주님의 기도는 모든 형제들이 함께 바치는 보편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이의 아버지이시고 영원토록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형제입니다.

496 영혼들을 보살피고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 그대 안에는 그대가 소중히 여기는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고통과 번민들이 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모두에게 연대감을 느끼십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걸으며 인생을 향해, 고통과 십자가를 향해 미소 지읍시다.

497. 온 인류를 끌어 안고 이해심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그대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 안에 남아있지 마십시오. 그대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재빨리 그것을 교회를 위해 봉헌 하십시오. 얼마나 많

은 형제들이 고통 받고 있는지!

498. 세상 모든 형제들이 그대의 빛나는 눈, 미소 짓는 입술, 행복에 찬 알렐루야를 부르는 그대의 전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온 세상 형제들이 그대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통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499. 하느님! 인류 구원의 신비를 꿰뚫어볼 수 있는 빛을 제게 주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신비에 협력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과 죽음조차도 불사할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소서.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작게 보여지게 하소서. 오염된 화살이 세상을 전염시키는 것처럼 제 사랑의 화살이 온 세상을 전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500.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덕의 길을 함께 가는 형제들의 도움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501 영혼은 우주 전체를 끌어안기를 꿈꿉니다! 우리의 거대한 포부 앞에 세상은 작게만 보입니다.

502. 자매들 하나 하나가 그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기와도 같이 그대를 감싸주고 보살펴주시는 하느

님의 사랑을 그들 안에서 만날게 될 것입니다.

503. 세상 전부가 나의 것이요, 나의 야망, 나의 갈망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 걱정하고 싶습니다.

504. 세상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대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어, 영혼들의 고통을 품에 안고, 인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설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505. 전 세계 영혼들이 살고 있는 지구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전율을 느낍니다. 그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청하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었던 때를 생각하면 내 영혼이 쓰라립니다..

506. 우리와 함께 있는 이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매 하나 하나를 섬세하게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507. 우리의 삶은 세상 전체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생명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쳐 세상 형제들을 위해 써버린다면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결코 싫은 기색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모두가

협력하는 형제애의 축제에 더욱 큰 열정으로 다가갑시다.

508. 사랑의 상처를 받으신 하느님께서 호소하십니다. 사랑의 고통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죽어가는 어린이들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조차 없어 한숨짓는 불쌍한 백성들 안에서 부르짖으며 호소하십니다. 아니, 그들은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이에 응답합시다. 생명에 찬 사랑의 응답을 시작해야 합니다.

509. 관상자는 사랑의 성소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관상자는 결코 자신 안에 갇혀있지 않으며 아낌없이 내어주는 신비로 자신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뜨겁게 타오르며 포효하는 사랑의 불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불로 영혼의 그릇이 늘어나고 인류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온 세상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안에 생겨나고 형제들이 그 자리를 온통 차지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동시에 모든 이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사랑의 건축구조입니다.

510. 베들레헴의 동굴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기심이라고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오직 하느님과 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 가지도 못하고 외국인처럼 알아듣지도 못합니

다.

베들레헴의 동굴에서는 한 가지 언어만이 사용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국제공용어입니다. 모두에게 이 말이 통합니다.

511. 33억에 달하는 형제들! 10억이 넘는 침묵 교회의 보이지 않는 형제들!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아직도 우리는 이기심과 개인의 이익을 찾으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아를 다스리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을 감을 때가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고통 받고 있는지...!